

# 이용섭-강기정 양강구도 접전

■광주시장 적합도·시정 평가

“이 시장 잘하고 있다” 50.5%  
강 32.7%-이 30.4% 오차범위 내

차기 광주시장 선거에서 이용섭 현 광주시장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양강구도를 형성한 채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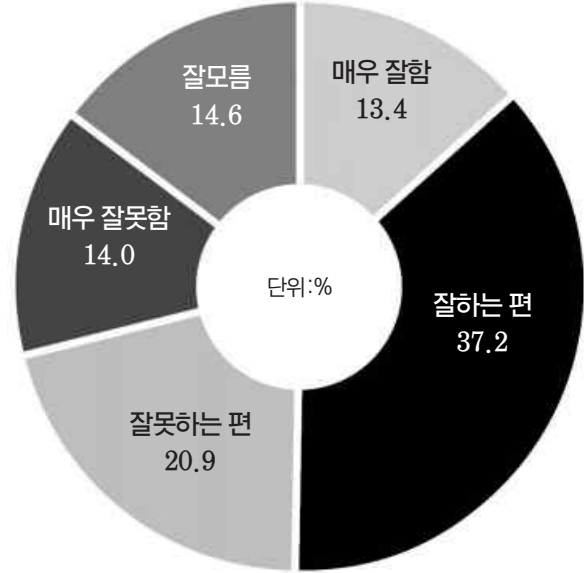
광주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(주)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9일~30일까지 광주지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809명을 대상으로 차기 광주시장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강기정 전 수석이 32.7%로, 30.4%의 이용섭 시장을 오차범위(±3.4% 포인트) 내에서 앞섰다. 이어 문인 광주 북구청장(5.3%), 김주엽 진보당 광주시장 후보(3.2%), 장연주 정의당 광주시의원(2.9%), 정준호 변호사(2.7%) 순으로 집계됐다.

적합한 후보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10.0%, 잘 모르겠다는 10.1%, 그의 인물은 2.6%였다. 지방선거가 6개월을 앞두고 있는 만큼 부동층은 20.1%로 높았다. 지역별로는 강 전 수석이 남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에서 이 시장에 앞선 가운데 자신이 3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북구에서는 36.9%를 얻으면서 다른 자치구 선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. 이 시장은 남구와 서구에서 각 33.6%를 얻으며, 평균 대비 높은 지지를 나타냈다.

이 시장은 보수층(34.9%)과 자영업(34.5%), 더불어민주당 지지층(33.9%) 등에서 전체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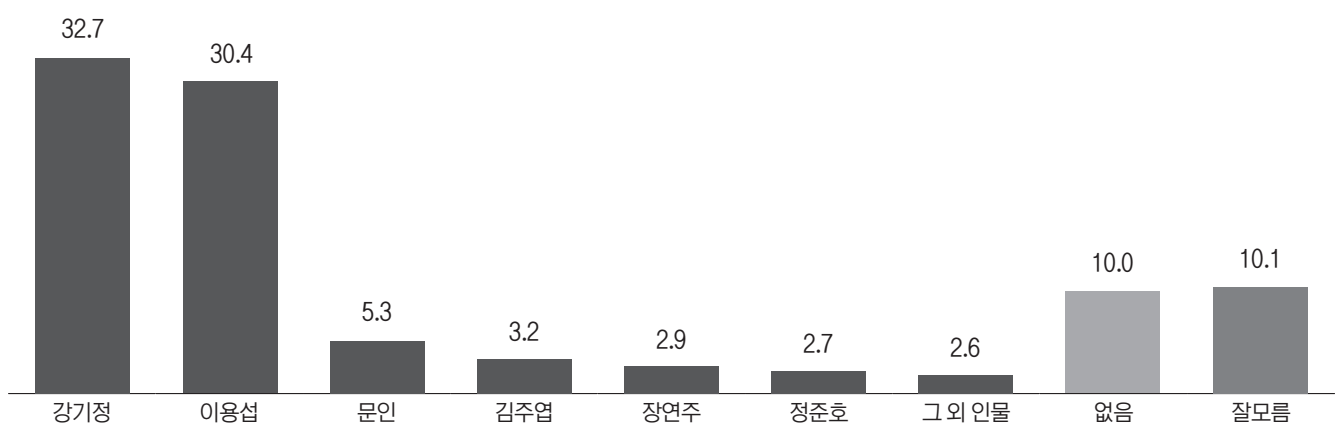
강 전 수석은 진보층(38.1%)과 사무·관리·전문직(38.3%), 자영업(38.0%), 가정주부(36.9%), 더불어민주당 지지층

■광주 시정운영 평가



(42.2%)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다. 반면, 이용섭 시장은 시정운영 평가에서 50.5%의 높은 긍정 평가를 받았다. ‘매우 잘하고 있다’가 13.4%, ‘잘하는 편이다’가 37.2%였다. ‘잘못하고 있다’는 부정 응답은 34.9%(매우 잘못함 14.0%, 잘못하는 편 20.9%)였다. ‘잘 모르겠다’고 평가를 유보한 응답자는 14.6%였다. 긍정 평가는 60세 이상에서 62.3%, 진보층(54.2%)에서 높았고, 정당별로는 정의당(57.8%)과 더불어민주당(55.7%) 지지층 등에서 50~60%를 상회했다. /최권일 기자 cki@kwangju.co.kr

■광주시장 후보 지지도 (단위:%)



# 10명 중 6명 김영록 지사 지지

■전남지사 적합도·도정 평가

서부권·50대·진보층서 높은 지지율  
김 지사 도정 운영 긍정 평가 62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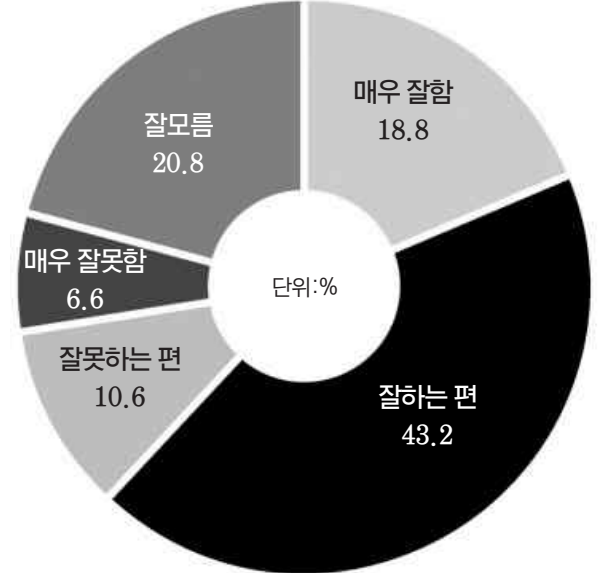
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전남지사 선거를 5개월 앞두고 진행된 광주일보 여론조사에서 현 김영록 전남지사가 60%에 가까운 지지율을 얻어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김 지사는 도정 운영평가 조사에서도 60%를 웃도는 긍정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광주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(주)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9일~30일까지 전남지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807명을 대상으로 전남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한 결과, 10명 중 6명에 가까운 59.4%가 ‘김영록 현 전남지사’를 선택했다. 다음으로 ‘김화진 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’ (10.4%), ‘민정기 진보당 전남도지사 후보’ (4.1%)가 뒤를 이었다. ‘기타 인물’은 4.4%로 나타났고, ‘없음’ (9.4%)과 ‘잘 모름’ (12.2%)의 부동층 합계는 21.6%로 조사됐다.

모든 계층에서 김영록 지지 응답이 가장 많은 가운데 서부권 (64.7%), 50대 (70.0%) 및 60세 이상 (63.1%), 진보층 (68.7%), 판매·생산·노무·서비스직 (65.6%)·자영업 (64.2%)·농·임·어업 (66.9%), 더불어민주당 (70.2%) 지지층 등에서 전체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다.

현 김영록 전남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조사한 결과, ‘잘하고 있다’는 긍정 응답이 62.0%(매우 잘함 18.8%, 잘하는 편 43.2%)로 나타났다. ‘잘못하고 있다’는 부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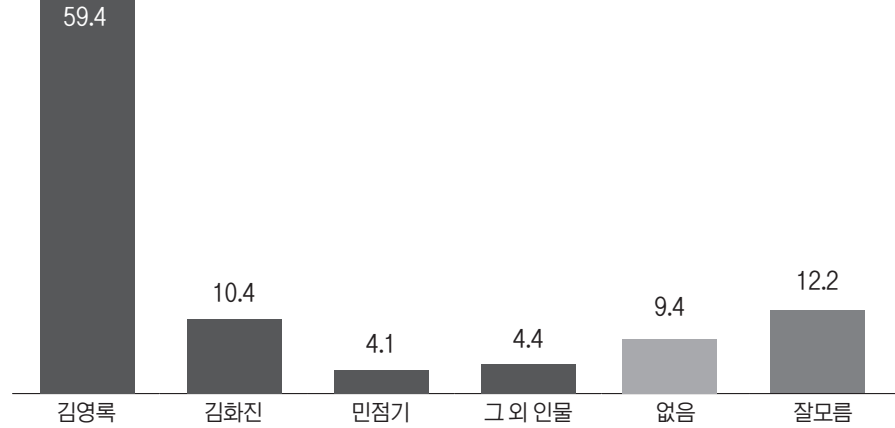
■전남 도정운영 평가



응답은 17.2%(매우 잘못함 6.6%, 잘못하는 편 10.6%)로, 긍정·부정 응답 간 차이가 세 배 이상(44.9%포인트)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. ‘잘 모름’은 20.8%였다.

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~30일까지 이틀간 전남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7명을 대상으로,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안심번호 80%와 유선전화 20%를 이용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됐다. 표본오차는 ±3.4% 포인트(95% 신뢰수준)이며, 응답률은 5.1%였다.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. /김형호 기자 khh@

■전남지사 후보 지지도 (단위:%)



# 무주공산 입지자 난립...이정선 19.2% 1위

■광주시교육감 적합도

현 교육감이 3선 연임제한에 걸려 무주공산인 상황에서 차기 광주시교육감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, 이정선 전 광주교육대 총장이 19.2%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. 그의 후보들은 모두 한 자릿 수 지지율을 확보하는데 그쳤다.

10여명이 출마 의지를 표명하는 등 입지자가 난립한 상황에서 지난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이름을 알린 일부 후보들이 기존 인지도를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다는 분석이다. 최영태 전 전남대 인문대학장이 9.0%를 얻었으며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8.6%, 지병문 전 전남대 총장 7.6%, 이

정재 전 광주교육대 총장 7.0%, 박혜자 전 국회의원은 6.9%를 기록했다.

김홍식 전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4.0%, 강동완 전 조선태 총장 3.9%, 김선호 전 동아여중·고 관선 이사장 3.4% 그리고 유일하게 현직으로 입지를 표명한 박주정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3.7%의 지지를 얻었다.

‘그 외 인물’ 2.1%, ‘적합인물 없음’은 9.8%, ‘잘 모르겠다’는 응답도 14.7%나 됐다.

이에 따라 압도적 인지도를 보이는 인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 향후 색채가 비슷한 입지자 간 합종연횡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. /김대성 기자 bigkim@kwangju.co.kr

# 3파전...장석웅 현 교육감 압도적 선두

■전남도교육감 적합도

3파전 양상을 보인 차기 전남도교육감 선거에서 장석웅 현 전남도교육감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.

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현직인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36.4%로 가장 높았고, 김대중 전남교육자치포럼 대표 10.8% 김동환 광주전남미래교육희망포럼 상임대표 7.2% 등의 순이었다.

‘그 외 인물’은 7.0%, ‘적합인물 없음’ (13.8%)과 ‘잘 모름’ (24.8%)의 부동층 합계는 38.5%로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.

장석웅 현 교육감은 ▲60세 이상 (40.5%) ▲남성 (41.0%) ▲진보층 (45.3%) ▲판매·생산·노무·서비스직 (44.3%) 및 무직·은퇴·기타 (40.9%) 등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으며 ▲더불어민주당 (41.8%) 지지층 등에서 전체 평균 대비 높은 지지를 보였다.

일찍이 출마선언을 해 관심을 모은 김대중 후보는 10%대 지지율을 보인 가운데 ▲광주근교권 (15.9%) ▲30대 (16.2%) ▲보수층 (14.8%) ▲자영업 (16.2%) ▲열린민주당 (18.1%) 지지층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.

최근 출마 예정자로 이름을 올리며 얼굴 알리기에 나선 김동환 광주전남미래교육희망포럼 상임대표는 한 자릿 수 응답을 보였지만 ▲국민의힘 (11.2%) 및 국민의당 (19.1%) 지지층 등에서 다소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. /김대성 기자 bigkim@kwangju.co.kr

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

전원주택 강력추천!

##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

경상리 전원주택부지

■ 면적 : 456평

■ 4채 건축허가 득

■ 진입로 상수도 확보

상담 010-3675-7592